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 19면에서 계속

이거든요. 아, 팥죽 속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팥죽 방울이. 그러니까 내가 살림살이 하는 게 이게 팥죽 끓듯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생명들이요, 아주 간략하게 쳐서 15억이라고 해도 되고 16억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건 숫자로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 하나가 수천도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 하나가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니까요. 내가 여러분이 된다면 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도 구름을 타고 연애를 걸러 다니거든요. 사형이 보니까 아, 요놈이 또 연애 걸러 가거든요. 그런데 몸뚱인 놓고 그게, 진짜가 가는 거죠. 가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구름을 타고 그냥 연애 걸러 가니까, '요놈 또 봐라.' 그러고선 구름을 타고 가는 거를 그냥 탁 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살려 달라고 그냥, 인젠 안 그럴 테니 살려 달라고 그래서 놔줬다는 얘기가 있듯이 말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죽 솥에 죽 끓듯 하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인과로 인해서 업이 생기고 그 업이 뭉쳤기 때문에 고덩어리니깐요. 거기서 그 방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 방울마다 나오는 대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방울을 바로 그 마음으로써 다스리고 나가야 할 텐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는 나오는 대로 그냥 말도 해 버리고 "이 죽일 놈 살릴 놈, 급살을 맞아라." 뭐 어쩌고 그러고, 미우면 "그거 차에도 치여 죽지 않나?" 그러고. 성가시게 하면 그런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외려 죄업이 벗어져서 잘되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을 하니까 '이 둥우리는 냉랭한 둥우리구나. 추워서 못 들어가겠다.' 이러고는 거리로 나돌다가 점점 더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무리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들어오면, 외박을 한다 하더라도 "얘, 너 어디 가서 춥지나 않았니?" 또 더울 때는 "덥지나 않았니? 뭐라도 좀 먹었니? 얘, 너를 주기 위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음식을 해 놓고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고 주인공에다 맡기고 부드럽게 해 주고, 또 자기가 나갈 때는 종이에다가 그렇게 뽀뽀 한 번 해 놓고 "당신을 사랑해." 또 "너를 사랑해." 그러고 냉장고에다 붙여 놓고 나가면, 그거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이해력을 가지고 넓게 쓴다면 그 보금자리가 따뜻해서 바로 화목해지고 딴 데로 이탈이 되질 않아요.

맷돌에 심봉을 딱 끼고선 맷돌을 돌리고 거기다가 물건을 넣으면 잘 갈려 나오지만 심봉을 잘 꽂질 않고 하면 그냥 그게 맷돌이 이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도 갈리질 않아요. 인간도 그렇게 살면 이탈이 되고 잘 갈리지 않고 그러니까 죽네 사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봉만 딱 이탈되지 않게 꽂아 놓고 그대로 잘 돌린다면 뭐라도 넣어서 갈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갈아지는 게 어딨습니까. 그 대신 안 되는 게 어딨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게 그대로 법이요, 중용입니다. 좀 인간이라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보람도 가져야만이 인간이 산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선 안에도 노예가 되지 말고 바깥도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펄펄 뛴다 하더라도 펄펄 뛸 게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쪼개져서 산산조각이 난다 하더라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그러니 '에이, 죽는 것도 너로 인해서, 사는 것도 너.' 이런다면 펄펄 뛸 게 뭐 있습니까. 거기다가 모두 여러분을 공부 가르치려면 주인공이 외려 딴 사람을 시켜서 쿡쿡 찌르게 만들고 일을 벌여 놓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아 가지고 바깥으로 온통 야단이 나죠. 그럭하지 마시고 '아하, 이게 거기서 나 공부시키느라고 이렇게 온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아이구, 알았구나.' 그러고선 그냥 없어져요. 팥죽 솥에 팥죽 끓는 것 탁 치면 없어지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울이 올라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생활 속에서 오는 대로 거기다가 그냥, 그 주자로 쳐서 거기다 놓으십시오. 그런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 무명을 벗고 또 남도 동시에 무명을 벗겨 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사십시오.

마음공부 함에 명심할 것은

질문 저는 유트브로 큰스님 법문을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공부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명심해야 할 게 있을는지요.

답변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걸 하는 것이 입력이 된다는 사실, 바로 이 대뇌를 통해서 소뇌와 중뇌를 통해서 책정을 내리면 정수에 바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입력이 돼서 그 입력된 대로 현실로 나온다는 것. 그래서 현실로 나오는 것을, 나쁜 것이 나왔든 좋은 것이 나왔든 나오는 대로 그 컴퓨터에 그냥 다시 입력을 해라. 그냥 거기 주인공에 맡기고 놓는다면 바로 재빨리 입력이 된다. 그러면 앞서 입력이 돼서 구정물이 나오려고 했던 것을 바로 새 물로다가 입력을 한다면 현실에 새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는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다 입력을 하면 앞서 입력된 건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된 게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너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너만이 진행되게 할 수 있고 연구가 잘되게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집안에 환자가 있을 때는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잖아.' 왜냐? 둘이 아닌 까닭이죠. 뿌리가 둘이 아니요, 불성이 둘이 아니란 얘깁니다. 불, 생명,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둘이 아니란 말이지요.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것도 부모다 자식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가설이 된 거니까요.

우리는 그냥 어떠한 이름으로다가 신을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신이요, 여러분이 다 선자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여하게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관습에 얽매이고 집착에 얽매이고 욕심에 얽매이고 모두 그렇게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눈이 밝아지지 않고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게 나오든지, 밝지 못한 게 나오든지 밝은 게 나오든지 모든 걸 거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입력이 되는 대로 사대로 통신이 돼서 소임을 맡은 자에게, 즉 위장의 소임을 맡은 자, 방광 또는 콩팥, 척수, 척추, 이 대장, 소장 이런 데로 다 통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임 맡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모든 세계죠, 이 몸뚱이도. 세계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이 정수에서, 대뇌에서 사대로 딱 통신이 된다면 그 소임자들한테 전부 통신이 되는 거예요. 전부 통신이 돼서 그 어디가 모자라고 어디가 넘치고 그러는 거를 다 알게끔 되고 모자라는 건 채우고 너무 넘치는 거는 줄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본은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화가 없고 냉장고가 없다면 아주 편리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나는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다가 컴퓨터가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컴퓨터를 짊어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짊어지고 다녀 봤던들 그거를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영원히 우리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이 자동적인,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이자 바로 우리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첫째, 물론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 둘째는 자기 분수를 알았으면, 나무들이 뿌리 없이는 못 살듯이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야죠. 셋째는 거기에다 다 입력을 하고 놓고 산다면 모든 게 부자 부럽지 않게 영묘하고 자유스럽게 자유권을 얻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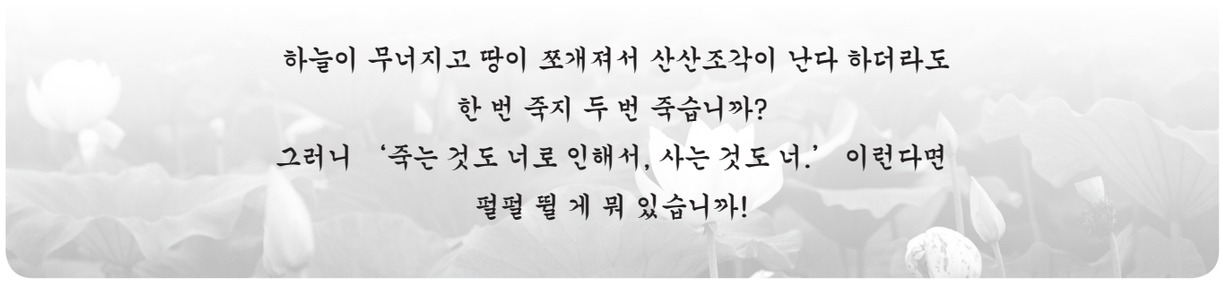
간단한 상차림의 의미

질문 다른 사찰에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선원에서 천도재를 하는 것을 보고 상차림이 정갈하고 좋다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상차림에 의미가 있는지요.

답변 우린 재사 지낼 때 과일만 놓고 둥근 떡 하나 놓곤 그냥 지냅니다. 신도들이 집에서 제사 지낼 때도 일 다니는 사람은 아침에 떡집에 전화 걸어 놨다가 그냥 저녁에 퇴근하고 갈 때 들고 가서 지내라고 그래요. 편안하게 그렇게 해야죠.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살면서 우리는 그 의식주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딱 상세계에 오를 때에는, 그 의식적으로 벌써 먹고 입고 살던 뭐, 이런 거에 착을 두기 때문에 영 상세계로 올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영령들을 아예 재사 지낼 때 그냥 둥근 떡 안에다가 다 그냥, 그러니까 우주 전체 안에다가 '이 우주 전체 안에 있는 거는 당신 거요.' 그러곤 그냥 다 거기다가 넣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먹고 사는 데에 대한 애착, 그런 게 다 떨어져요. 그래야 상세계에 보살로 출현을 하시든가 또 선관선녀로 출현하시든가 부처로 하든가, 뭐, 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중세계만 생명들이 산다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구만 생명이 사는 게 아니니까요.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뜨거운 데서도 생명이 있고 차면 찬 대로 생명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사를 지낼 때 둥근 떡, 어떤 집은 영령들이 많거나 또 식구들이 많은 집은 일곱 켜를 해 놓고, 찰떡을 그릇에다 이렇게 해도 좋고 백설기를 둥그렇게 해도 좋아요. 아무것도 넣지 말고. 설탕만 좀 넣고. 그렇게 해서 놓으면 이 우주의 그 근본이 다 응감을 하게 돼 있어요. 우주의 근본이 다 응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법신들이 다 내려보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는 사람 움죽거리는 거까지 사왕천에서 다 이렇게 통해서 누구나 어떠한 영가든지 다,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려면 막대기 기다란 데다 굵은 사탕 하나 낀 것처럼 끼워 가지고, 이게 법륜이거든요. 그것이 표시예요. 그것만 들었다 하면 무사통과죠, 모두가. 그런데 여러분은 도무지 그 도리를 하나도 모르니…. 너무나 이 도리를 몰라서 오히려 핍박을 받고 그 도리를 몰라서 오히려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고 그 도리를 몰라서 울고불고 야단법석이고 아, 이러니 글쎄, 내가 어떻게 애원치 않겠어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